‘제국’ 이후의 (영국)미술사 쓰기*

류 지 이**

I. 들어가며
II. 보이지 않는 기억: (영)제국과 미술사 연구
III. 비가시성의 가시화
IV. 현재진행형의 역사. ‘Brexiting’ 시대의 학문적 실천
V. 나가며: Empire Is the New Black?

요약문

이 글은 영국미술사 분야의 새로운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 포스트 식민주의 맥락에서 미술사와 제국사의 ‘얽힌 역사’ 쓰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등장한 소위 ‘신미술사’, ‘미술의 사회사’, ‘비판적 미술사’, ‘급진적 미술사’는 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이슈를 통해 미술사학계의 정치적 전환을 꾀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식민주의는 정치적 전환과 함께 등장했던 다른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학계의 주요 담론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동안 미국이 주도했던 걸프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가담한 영국 사회에서 제국이라는 주제는 ‘후기’제국주의 또는 ‘신’제국주의적인 영국 사회의 짐이자 금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사의 분기점은, 『미술과 영제국』(*Art and the British Empire*)이 영국미술사 서사에서 제국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좀 더 긴 시간대를 고찰하면서 ‘영국’ 미술과 ‘제국’ 미술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선언했던 2007년이 되어서야 찾아왔다. 이후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에 걸쳐 다양한 구 식민지 지역들을 살펴보고 메트로폴리탄 문화와 식민지 사회 간의 상호 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좀 더 넓은 전 지구적 맥락 속에서 영국미술을 이해하려는 학술 연구가 미술사학계 내에서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의 지형도를 통해 영국미술사와 제국사의 교차지점을 살펴보고 미술사의 탈식민화, 나아가 교육과정의 탈식민화를 실천하고자 한다.

* 이 연구는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2022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www.kci.go.kr

I. 들어가며

"Why is my curriculum white?"(내 커리큘럼은 왜 이렇게 새하얗지?)

2014년 11월,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소속 흑인 및 소수민족(Black and Minority Ethnic, BME) 학생 네트워크가 대학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관한 학생들의 경험과 의견을 담은 20분짜리 영상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백인-남성 중심적인 커리큘럼을 비판하고 '교육과정 탈식민화(Decolonising the Curriculum)'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영국 전역의 대학들로 퍼져 나갔다.[1]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었던 교육과정 탈식민화 운동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백인-서구-남성-엘리트 지배적으로 구성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좀 더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통해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차별과 불평등, 인종주의의 유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6월, 『가디언』(*The Guardian*) 지는 영국 대학의 1/5만이 교육과정 탈식민화에 동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 취재에 응한 교수와 학생 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식민주의가 현재의 인종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에 대한 영국 고등교육의 거부감을 반영한 것이라 평하며, 제국주의/식민주의에 뿌리를 둔 현재의 대학 교수법을 제도적인 수준에서 개혁할 것을 요청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민주의에 의해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은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3] 제국의 지속과 해체 과정을 밝히는 것은 영국을 비롯해 과거 식민지를 경영했

1) "Why is my curriculum white?," UCLTV, last modified November 12, 2014, https://youtu.be/Dscx4h2l-Pk.

2) David Batty, "Only a fifth of UK universities say they are 'decolonising' curriculum," *The Guardian*, June 11, 2020,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0/jun/11/only-fifth-of-uk-universities-have-said-they-will-decolonise-curriculum.

3) Peter Childs and Patrick Williams, *An Introduction to Post-Colonial Theory*, trans. Moonhwan Kim (Seoul: Moonye Publishing Co., 2004), 29 [피터 차일즈·패트릭 윌리엄스, 『탈식민주의 이론』, 김문환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4), 29].

www.kci.go.kr

던 국가들의 현대사는 물론 전 지구적 20세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며, 제국사와 미술사를 별개의 것이 아닌 ‘얽힌 역사(connected history)’로 이해하는 것은 탈식민주의 미술사의 과제이자, 현재 미술사학계에서도 부상하고 있는 전 지구적(global)·초국가적(transnational) 관점, 교육과정 탈식민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포스트 제국 사회인 영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제국 이후의 미술사’를 쓰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술사와 시각문화, 영제국사의 교차지점에 주목한 연구물들을 모아 사학사적 계보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규명할 것이다.[4)]

오랫동안 학계의 영국미술사 서술방식이나 주요 기관의 영국미술 관련 전시 내러티브가 제국이라는 주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데 소극적이었던 반면, 역사학계에서 나타난 ‘신제국사(new imperial history)’ 연구는 새로운 접근법과 다양한 소재를 발굴·제시하여 미술사를 포함한 다른 인접 학문에도 인식론적 전환을 가져왔다.[5)] 공공역사(public history) 다시 쓰기를 실천하는 태도는 특히 영국의 역사학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6)] 영국 연구재단(Research Council)의 지원으로 수행된

---

4) 전후 영국을 ‘탈’식민 또는 ‘탈’제국주의적인 공간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 연구자는 영국 사회가 제국주의적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재진행형의 제국 및 제국주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형용사 ‘post-imperial’을 탈제국으로 옮길 경우, ‘이후(after)’ 또는 ‘넘어선(beyond)’ 상태로 받아들여져 제국 해체 이전 시기와의 완전한 단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제국사와 영국사를 ‘얽힌 역사’로 읽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포스트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5) 신제국사와 수정주의 패러다임에 관해서는 Stephen Howe, ed., *The New Imperial Histor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09); Andrew S. Thompson, ed., *Writing Imperial Histori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3).

6) 최근에는 영국의 대학에서 공공역사와 미디어를 위한 역사학이 독립된 분야로 연구·교육되기 시작했고, 데이비드 올루소가(David Olusoga)처럼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 연구자이면서도 대중을 위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와 역사서를 기획·제작하는 역사학자의 역할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올루소가는 영국공영방송(BBC)에서 방송된 다수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노예제, 영국

www.kci.go.kr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학술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것을 넘어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더 많은 사회구성원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7]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영국사 전공자들이 꾸준히 대서양사와 지구사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국민국가(nation state)와 제국의 경계를 넘어 작동했던 노동, 상품, 이념의 네트워크에 주목해왔다. 이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영국사 연구가 갖는 의미를 재고하고, 제국사와 내국사(domestic history)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8] 최근에는 한국인 연구자가 저술한 영제국사 또는 제국사 전반을 다룬 연구서들이 등장했으며,[9] 서구 학계가 주축이 되어 논의

계 흑인, 제국의 해체와 다문화 사회처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소재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아카데미상(British Academy of Film and Television Arts)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맨체스터 대학의 공공역사 담당 교수로 부임했다.

7) UCL 역사학과 교수 캐서린 홀(Catherine Hall)이 주도한 '영국 노예소유권의 유산(Legacies of British Slave-Ownership)' 프로젝트(2009-)와 이를 바탕으로 한 BBC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8) Daeryoon Kim, "A New Paradigm of British History?: Atlantic History, Global History and 'New British History'," *The Korean Journal of British Studies* 23 (2010): 1-29 [김대륜, 「영국사, 대서양사, 지구사 - 영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영국 연구』 23호(2010년): 1-29]; Sangsoo Kim, "Network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British Empire: A Re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tropole and Periphery," *The Korean Journal of British Studies* 51 (2014): 297-318 [김상수, 「영제국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 영국과 식민지의 관계에 대한 재고」, 『영국 연구』 31호(2014년): 297-318]; Young-Suk Lee, "Historiography of the British Empire and Global History,"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25 (2011): 297-326 [이영석, 「영제국사 서술과 지구사」, 『한국사학사학보』 25호(2011년): 297-326]; "Recent Historiography of the British Empire and Culture," *The Journal of Western History* 50 (2014): 61-90 [「영제국사 서술과 문화」, 『서양사연구』 50호(2014년): 61-90].

9) Daeryoon Kim, *Money, State, Hegemony* (Paju: Woongjinjisikhouse, 2021) [김대륜, 『패권의 대이동』(파주: 웅진지식하우스, 2021)]; Tai-Yoo Kim and Daeryoon Kim, *The Secrets of Hegemony* (Seoul: SNU Press, 2017) [김태유·김대륜, 『패권의 비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Young-Suk Lee, *The Memories and Legacy of the British Empire* (Paju: Acanet, 2019) [이영석, 『제국의 기억, 제국의 유산』(파주: 아카넷, 2019)].

www.kci.go.kr

해 온 지구사 연구의 계보를 정리하고 동아시아 특수성을 제시한 국내 역사학자의 저작이 출간되기도 했다.[10] 한편 국내 미술사학계에서는 여전히 프랑스를 구심점으로 한 유럽 대륙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미술의 중심지로 떠오른 미국이 서양 근현대미술사의 주요 서사를 차지하고 있다.[11]

이와 같은 학문적 배경 속에서, 본 논문은 미술사와 시각문화를 영제국주의(British imperialism) 맥락에 재배치하여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의 일국사적 미술사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변화의 지형도를 그려볼 것이다. 이를 통해 탈제국주의/식민주의 흐름 속에서 시도되는 초국가적 미술사의 역할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 학계에 유용한 비교사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미술사 또는 탈식민주의 미술사를 쓰기 위한 참조항이 되기를 기대한다.

---

10) Hye-Jeong Park, *One Globe Multiple Global Histori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22) [박혜정, 『하나의 지구 복수의 지구사 - 지구사 입문』(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11) Young-Paik Chun, *Decisive Moments of Modern Art* (Seoul: Hangilsa, 2019) [전영백, 『현대미술의 결정적 순간들』 (서울: 한길사, 2019)]; Hal Foster et al., *Art Since 1900: Modernism, Antimodernism, Postmodernism*, trans. Suhee Bae et al.(Seoul: Semicolon, 2016) [할 포스터 외,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 외 역 (서울: 세미콜론, 2016)]; Charles Harrison, *Modernism*, trans. Moojeong Chung (Seoul: Yeolhwadang, 2003) [찰스 해리슨, 『모더니즘』, 정무정 역 (서울: 열화당, 2003)]; Juyoun Jo, *Hyundaemisul Gangui* (Paju: Geulhangari, 2017) [조주연, 『현대미술 강의』 (파주: 글항아리, 2017)]; Hyunwha Kim, *Journey to Contemporary Art* (Paju: Hangilsa, 2019) [김현화, 『현대미술의 여정』 (파주: 한길사, 2019)]; Youngna Kim, *Johyunggwa Sidaejeongsin* (Seoul: Yeolhwadang, 1998) [김영나, 『조형과 시대정신』 (서울: 열화당, 1998)]; *Seoyang Hyundaemisului Giwon 1880-1914* (Seoul: Sigongsa, 1996) [『서양 현대미술의 기원 1880-1914』 (서울: 시공사, 1996)]; Norbert Lynton, *The Story of Modern Art*, trans. Nanjie Yun (Seoul: Yekyong Publishing Co., 2003) [노버트 린튼, 『20세기의 미술』, 윤난지 역 (서울: 예경, 2003)]; Nanjie Yun, *Abstract Art and Utopia* (Paju: Hangilart, 2011) [윤난지, 『추상미술과 유토피아』 (파주: 한길아트, 2011)]; *Landscape of Modern Art* (Paju: Hangilart, 2005) [『현대 미술의 풍경』 (파주: 한길아트, 2005)].

www.kci.go.kr

II. 보이지 않는 기억: (영)제국과 미술사 연구[12)]

정치적 형태로서의 제국은 '공식적으로' 사라졌고 형식상의 식민주의는 종결되었기에 우리는 흔히 탈식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 흔적은 시각적·물질적 형태로 살아남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과거 영제국을 경영했던 영국은 세계 대전 이후 제국이 해체되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외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했다. 형식적인 탈식민화 이후, 1960-70년대 영국의 제국사 연구는 제국을 '상실'했다는 패배주의적 관점과 함께 그저 쇠락한 것으로 여겨졌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시각적·물질적 형태로 살아남아 있는 '제국의 흔적들'을 자기반성적으로 되짚어보는 역사학계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제국적 전환(imperial turn)과 함께 영제국(British Empire)과 식민본국의 메트로폴리탄 문화를 재검토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역사학자들은 식민화, 탈식민화, 복수의 국가 정체성(들), 애국주의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국사 연구의 새로운 접근법과 '대중 제국주의(popular imperialism)'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이어진 대처(Margaret Thatcher, 1925-2013) 시대에 대한 반응으로, 1982년에 발발한 포클랜드 전쟁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미술(사학)계에서 제국의 문제는 대체로 터부시되어 왔다. 1970-80년대 영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급진적 사회·정치·문화 운동과 함께 학계의 정치적 전환이 일어난 이후에도 제국주의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미술사 영역에서 침묵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1970년대에 등장한 '신미술사(new art history)', '미술의 사회사(social history of art)', '비판적 미술사(critical art history)', '급진적 미술사(radical art history)'는 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이슈를 통해 미

12) II장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내용임. Jiyi Ryu (류지이), "Visualising and Experiencing the British Imperial World: The British Empire Exhibition at Wembley (1924/25)"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rk, 2018), 23-25.

www.kci.go.kr

술사학계의 정치적 전환(political turn)을 꾀하였다.[13] 그러나 제국주의/식민주의는 정치적 전환과 함께 등장했던 다른 이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학계의 주요 담론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동안 미국이 주도했던 걸프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가담한 영국 사회에서 제국이라는 주제는 ‘후기(post)’제국주의 또는 ‘신(neo)’제국주의적인 영국 사회의 짐이자 금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 아래 영국미술사 분야에서 나타난 제국에 대한 기억 상실증은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에 의한 누락이 아니라 의도된 ‘망각의 정치학’에 가깝다. 2001년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에서 ‘미술과 영제국(Art and the British Empire)’ 학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에 동명의 연구서가 출간되었지만,[14] 영국의 공공미술관에서 제국주의와 영국미술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일은 극히 드물었고 미술사학계 역시 제국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경향은 비슷한 시기 역사학계에 등장한 신제국사 연구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2014년에 출간된 선집 『시각의 제국들』(*Empires of Vision*)은 유럽 제국주의의 역사와 시각문화의 교차점을 탐색하면서 식민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 맥락에서 시각성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15] 미국에서 활동 중인 역사학자 마틴 제이(Martin Jay)와 수마티 라마스와미(Sumathi Ramaswamy)가 편집한 이 선집은 미술사와 시각문화 연구(visual culture studies) 분야가 유럽의 제국주의 기획을 둘러싼 역사적 경험을 삭제하고 제국에 관해 함구해왔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이 책의 서문을 쓴 라마스와미는 미술사 교과서와 개론서, 시각

13) Jonathan Harris, *The New Art Hist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1); Michael Hatt and Charlotte Klonk, *Art History: A Critical Introduction to Its Method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6).

14) Tim Barringer, Geoff Quilley, and Douglas Fordham, eds., *Art and the British Empir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7).

15) Martin Jay and Sumathi Ramaswamy, eds., *Empires of Vision: A Read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4).

www.kci.go.kr

문화 관련 선집은 물론 『옥토버』(*October*)의 '시각문화 설문지(Visual Culture Questionnaire)'까지 폭넓게 검토하면서 제국주의와 미술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서양)미술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16] 라마스와미는 남아시아와 영제국을 연구해온 역사학자로서, 시각 이미지를 주로 분석해온 문화사학자의 관점에서 미술사와 시각문화 연구 분야에 나타나는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의 미비함을 더욱 크게 느꼈을 것이다.[17] 제국의 경험을 가진 영국의 미술사학계와 영국미술사 분야의 현실 또한 이러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예컨대 『영국미술 저널』(*The British Art Journal*)과 『영국의 시각문화』(*Visual Culture in Britain*) 같은 대표적인 학술지에서도 영국미술사를 제국사와 '얽힌 역사'로 읽으려는 시도는 상당히 드물었다. 『영국미술 저널』이 창간된 1999년부터 『시각의 제국들』이 등장한 2014년에 이르기까지 출간된 해당 학술지의 연구논문 가운데 제국주의 맥락에서 영국미술을 검토한 경우는 고작 2퍼센트에 불과했다.[18] 『영국의 시각문화』는 포스트 식민주의와 수정주의적 시각을 반영하여 북아일랜드, 영국령 인도(British India), 초국가주의, 전 지구적 맥락에서 재검토한 영국 조각 등에 초점을 맞춘 특별호를 내놓기도 했으나, 전체 비율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Ⅳ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영국의 학계에서 미술사학자들이 '미술사의 탈식민화(decolonising art history)'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해당 분과학문의 느지막한 대응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2020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19]

---

16) "Visual Culture Questionnaire," *October* 77 (1996): 25-70.

17) Sumathi Ramaswamy, *The Goddess and the Nation: Mapping Mother Ind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0).

18) 1권 1호(1999년)부터 15권 2호(2014/15)까지 검토한 결과, 총 481편의 논문 가운데 단 10편만이 영국미술사와 제국사를 함께 다루었음을 확인하였다. 제국사 또는 제국주의 문제와 관련된 전시평은 총 5편, 서평은 총 4편이 실렸다.

19) Catherine Grant and Dorothy Price, eds., "Decolonizing Art History," *Art History* 43, no. 1 (2020): 8-66.

www.kci.go.kr

한편 영국의 대표적인 인문·사회·예술 분야 학술 출판사였던 애쉬게이트(Ashgate)가 사업을 접으면서 2015년에 매각되었다. 이와 함께 ‘영국미술: 전 지구적 맥락(British Art: Global Contexts)’ 시리즈도 폐지되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출간된 이 시리즈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문화횡단주의(transculturalism) 개념을 고찰하고 제국 문제를 다루면서 영국미술사 연구의 폭을 넓혔다. 애쉬게이트 출판사는 2015년까지 총 176권의 ‘영국미술과 시각 연구(British Art and Visual Studies)’ 시리즈를 출간했는데, 대다수는 특정 작가나 미술 운동에 초점을 맞춘 단행본(monograph) 형식을 띠었다.[20] 이 시리즈를 통해 2005년 『검은 빅토리아인』(*Black Victorians*)과 2007년 『노예를 보여주다』(*Representing Slavery*)가 출간되기는 했지만 룬드 험프리즈(Lund Humphries)와 협업해 만든 전시 도록이었고, 애쉬게이트의 ‘영국미술과 시각 연구’ 시리즈 전반에 걸쳐 식민주의 및 탈식민주의 관련 주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21]

영국미술(사학)계의 변화는 역사학계에 비해 느리게 나타났다. 2005년 맨체스터, 2006년 버밍엄에서 연이어 열렸던 ≪검은 빅토리아인≫ 전은 1800-1900년대 영국미술에 등장했던 흑인들의 존재를 새롭게 조명했으며, 포스트 제국 사회인 영국의 공공 미술관들이 공동 기획한 전시라는 점에서 연구사 및 전시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특히 1) 맨체스터와 버밍엄이 과거 노예 노동에 기반한 면화(특히 맨체스터)와 노예제에 연루된 산업화의 역사와 깊이 연관된 영제국의 도시였고, 2) 식민성 장관으로 널리 알려진 조지프 체임벌린(Joseph Chamberlain, 1836-1914)이 중앙 정치로 나가기 전 버밍엄의 시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버밍엄 박물관·미술관(Birmingham Museum and Art Gallery) 설립을

20) 애쉬게이트는 2015년 테일러 앤 프랜시스 그룹(Taylor & Francis Group)에 매각되어, 2016년 루틀리지(Routledge) 출판사의 하위 브랜드로 편입되었다.

21) Douglas Hamilton and Robert J. Blyth, eds., *Representing Slavery: Art, Artefacts and Archives i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Aldershot: Lund Humphries, 2007); Jan Marsh, ed., *Black Victorians: Black People in British Art, 1800-1900* (Aldershot: Lund Humphries, 2005).

www.kci.go.kr

주도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전시의 내용과 장소성이 2000년대 영국 사회에 던진 질문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22)]

'영국미술'을 대표하는 공공 기관인 테이트 브리튼은 2008년 ≪동방의 매력≫(*The Lure of the East*) 전을 통해 처음으로 영국의 오리엔탈리즘 미술을 다루었다. 이 전시는 제국주의와 서구-유럽 중심적 시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모호한 태도로 근동(Near East)과 중동(Middle East)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의 '이국적인' 풍경과 인물을 재현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데 방점을 둔 서베이 전시(survey exhibition) 성격이 강했다.[23)] 이후 2015년 ≪예술가와 제국≫(*Artist and Empire*) 전이 열릴 때까지, 어쩌면 예상 가능하게도 테이트 브리튼은 영국의 제국주의 역사를 자신들의 미술사 내러티브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

22) 마커스 우드(Marcus Wood)는 노예를 재현한 '문제적' 이미지들이 미술사와 시각문화 연구에서 도외시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인쇄 문화에 주목했던 그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대서양 세계의 시각문화 연구에 영감을 주었다. 출판연도순으로 Marcus Wood, *Blind Memory: Visual Representations of Slavery in England and America 1780-1865* (New York: Routledge, 2000); Geoff Quilley and Kay Dian Kriz, eds., *An Economy of Colour: Visual Culture and the Atlantic World, 1660-1830*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Tim Barringer, Gillian Forrester, and Barbaro Martinez-Ruiz, eds., *Art and Emancipation in Jamaica: Isaac Mendes Belisario and His World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Kay Dian Kriz, *Slavery, Sugar and the Culture of Refinement: Picturing the West Indies, 1700-184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Agnes Lugo-Ortiz and Angela Rosenthal, eds., *Slave Portraiture in the Atlantic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Charmaine A. Nelson, *Slavery, Geography and Empire in Nineteenth-Century Marine Landscapes of Montreal and Jamaica* (London: Routledge, 2016); Tim Barringer and Wayne Modest, eds., *Victorian Jamaic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8); Sarah Thomas, *Witnessing Slavery: Art and Travel in the Age of Abol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9).

23) 예일 영국미술센터(Yale Center for British Art)와 테이트 브리튼이 공동 기획한 이 전시는 2008년 2-4월 미국에서 먼저 공개된 뒤, 영국으로 건너와 6-8월 런던의 관객들을 만났다. 2009년에는 터키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순회전이 열리기도 했다.

www.kci.go.kr

III. 비가시성의 가시화

역사학계의 신제국사 연구는 미술사 분야의 제국적 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중 제국주의를 연구해온 영국의 제국사학자 존 맥켄지(John M. MacKenzie)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1996년에 발표한 「미술과 제국」(*Art and the Empire*)은 논문 분량의 짧은 글이지만, 긴 시간대에 걸쳐 미술과 영제국의 관계를 검토한 선구적인 사례로 제국사와 제국주의 연구에 나타난 시각적 전환(visual turn)의 발단이 되었다.[24] 맥켄지는 1995년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1978)에 대한 (영국적) 응답으로 『오리엔탈리즘: 역사, 이론 그리고 예술』(*Orientalism: History, Theory and the Arts*)을 내놓았다. 문학 비평에 기반을 둔 사이드가 텍스트 분석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맥켄지는 사이드의 한계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미술, 건축, 음악, 공연예술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오리엔탈리즘 개념을 대중문화 분석으로까지 확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그가 초대 편집장(Founding Editor)를 맡았던 맨체스터 대학 출판부의 ‘제국주의 연구(Studies in Imperialism)’ 시리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시리즈는 1980년대 중반에 출간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200여 종의 학술 단행본을 펴내면서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제국주의를 연구하는 다양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25] 예컨대 박람회와 박물관, 광고, 대중 매체, 극장 문화, 청소년 문학과 어린이용 게임, 청소년 단체(보이 스카우트와 걸 가이드), 사냥, 인도주의 사업 등 각종 매체와 소재를 아우르며 제국사 및 제국주의 연구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특히 맨체스터 시리즈의 비판적 박물관 연구(critical museum

24) John M. MacKenzie, “Art and the Empire,” in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ed. P.J. Marsha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96-315.

25) 맥켄지가 주축이 된 ‘제국주의 연구’ 시리즈의 영향력은 2013년 100번째 출간을 기념하며 나온 선집 『제국사 쓰기』(*Writing Imperial Historie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차기 편집장 앤드류 톰슨(Andrew Thompson)이 선집의 편집을 맡았다.

www.kci.go.kr

studies)는 자연사 박물관과 인류학 박물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시각 및 물질문화 연구자들에게 꾸준히 학술적 영감을 주었다.[26]

2001년, 빅토리아·앨버트 미술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서 열린 전시와 함께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 새로운 영국 만들기』(*The Victorian Vision: Inventing New Britain*)가 출간되었다.[27] 맥켄지가 편집과 서문을 맡은 이 방대한 도록은 사회, 기술, 세계라는 3개 주제에 따라 총 15편의 글을 배치하였다. 왕실 후원, 여가 생활, 아동 교육, 젠더, 건강, 의학, 섹슈얼리티, 종교, 산업과 교통 및 통신 기술, 출판 문화와 사진, 박람회, 생태, 미술과 디자인 등 다양한 소재를 망라하는 특징은 맨체스터 '제국주의 연구' 시리즈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시리즈의 향방은 물론 미술사 분야의 제국적 전환 이후의 흐름을 가늠하게 한다.[28]

2001년은 1851년 대박람회(Great Exhibition) 개최 150주년을 기념했던 해로, 박람회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영국사와 미술사, 시각문화 연구의 주류를 이룬다.[29] 1851년 5월 1일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개최된 '수정궁 박람회'는 '세계 최초의 국제박람회'로 일컬어진다. 행사의 정식명칭은 '만국산업제품대박람회(Great Exhibition of the Works of

---

26) 시리즈 전반에 걸쳐 다른 전시 기관에 비해 미술관(art museum/gallery)이 상대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미술사학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미학적 이해와 시각적 분석, 미술사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27) John M. MacKenzie, ed., *The Victorian Vision: Inventing New Britain* (London: V&A, 2001).

28) 맥켄지가 쓴 10장 「제국과 전 지구적 시선」, 베린저가 쓴 14장 「제국의 환상: 빅토리아 시대 미술과 디자인에 나타난 인도와 아프리카에 대한 반응들」을 특히 눈여겨보아야 한다.

29) Jeffrey A. Auerbach, *The Great Exhibition of 1851: A Nation on Displa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Jeffrey A. Auerbach and Peter H. Hoffenberg, eds., *Britain, the Empire, and the World at the Great Exhibition of 1851* (Aldershot: Ashgate, 2008); Louise Purbrick, ed., *The Great Exhibition of 1851: New Interdisciplinary Essay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www.kci.go.kr

Industry of All Nations)’로, 대박람회의 성공은 이후 ‘앨버토폴리스(Albertopolis)’로 불린 사우스 켄싱턴 지역의 문화·예술·과학 복합단지 개발로 이어졌고 이러한 역사는 앨버토폴리스의 일부인 빅토리아·앨버트 미술관과도 관련이 깊다. 메트로폴리탄 사회와 영제국의 식민지,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의 미술 교육에 미친 영향, 나아가 여타 서구 사회의 박물관계에 일으킨 반향까지, 빅토리아·앨버트 미술관은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와 영제국의 문화사를 논하는 데 중요한 소재로 자리잡았다.[30]

영국미술사의 제국적 전환에 있어서는 미술사학자 팀 베린저(Tim Barringer)의 역할이 컸다.[31] 2001년 동명의 학회 개최 이후 2007년에 출간된 『미술과 영제국』은 영국미술사 서사에서 제국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좀 더 긴 시간대를 고찰하면서 ‘영국(British)’ 미술과 ‘제국(imperial)’ 미술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선언했다. 즉 기존의 ‘영국미술’ 연구가 ‘영국(Britain)’ 안에서 제작된 작품, 특히 ‘영국 제도(British Isles)’ 내의 대상과 주제를 다룬 작품들을 위주로 검토했던 것과 달리, 영국미술의 분석 대상에 제국이 핵심 요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선집에 실린 글들은 제국주의적 시대 배경에 주목하면서 지리적으로는 영국 밖 식민지들로 관심을 확장하고, 런던/영

30) V&A의 개괄적인 역사는 다음을 참조. Malcolm Baker and Brenda Richardson, eds., *A Grand Design: The Art of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V&A, 1997); Anthony Burton, *Vision and Accident: The Story of the Victorian and Albert Museum* (London: V&A, 1999); Julius Bryant, ed., *Art and Design for All: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V&A, 2011). 모두 V&A가 출판한 ‘자서전적’ 성격의 연구서들이다. 다음의 두 연구는 V&A의 기획 단계는 물론 제국의 중심과 주변부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보는 데 유용한 한 쌍이다. Arindam Dutta, *The Bureaucracy of Beauty: Design in the Age of Its Global Reproducibility* (London: Routledge, 2007); Lala Kriegel, *Grand Designs: Labor, Empire and the Museum in Victorian Cultur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31) 베린저는 서식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뒤 경력 초반에는 런던과 버밍엄에서 활동했으나, 1998년 예일대 교수직을 맡게 된 이래 지금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 미술사학자이다.

www.kci.go.kr

국과 그 바깥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미술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중심에 있었던 베린저는 이른 시기부터 제국사의 관점에서 영국의 미술과 시각문화에 대해 다시 쓰고, 기존의 서사를 재배치하는 시도를 해왔다. 1998년 출간된 『식민주의와 사물: 제국, 물질문화 그리고 박물관』(*Colonialism and the Object: Empire, Material Culture and the Museum*)은 그 대표적인 성과로, 베린저가 공동 편집한 이 선집은 비판적 박물관 연구의 선구적 사례이자 해당 분야의 고전이다.[32)]

'영(제)국미술사 연구(British art and empire studies)'에 있어 분기점이 되었던 2007년은 흥미롭게도 영제국 내 노예 무역이 폐지된 지 200년이 되는 해이자, 국내에서는 '세포이 항쟁'으로 알려진 '인도 봉기(Indian Uprising)' 150주년, 영국령이었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10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이었다.[33)] 『미술과 영제국』 이후,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에 걸쳐 다양한 구 식민지 지역들을 살펴보고 메트로폴리탄 문화와 식민지 사회 간의 상호 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좀 더 넓은 전 지구적 맥락 속에서 영국미술을 이해하려는 학술 연구가 미술사학계 내에서도 등장했다.[34)] 영제국사의 맥락에서 영국의 미술사를 재해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18세기,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 1837-1901), 에드워드 시대(Edwardian era, 1901-10)와 같은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연구 주제가 분석 대상이 되는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보니, 시대에 따라 선호되는 연구 주제들이 눈에 띄기도 한다. 이를테면 18세기 연구는 주로 해양화(marine painting) 장르, 제임스

32) 베린저와 톰 플린(Tom Flynn)이 중심이 되어 꾸려졌던 1995년 '오브젝트, 역사, 해석 들(Objects, Histories, Interpretations)' 패널 발표문을 토대로 했다. Tim Barringer and Tom Flynn, eds., *Colonialism and the Object: Empire, Material Culture and the Museum* (London: Routledge, 1998).

33) 필자는 영국의 미술사학계에서 영국미술사와 영제국사의 교차지점을 탐구해온 연구 경향을 'British art and empire studies'로 명명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한국어로는 '영(제)국미술사 연구'로 옮기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Ⅳ장에서 다룬다.

34) 1978년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출발해 1990년대를 관통하는 긴 연구사와 구체적인 참고문헌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참조. Ryu, "Visualising and Experiencing the British Imperial World," 25-39.

www.kci.go.kr

쿡(James Cook, 1728-79)의 항해와 태평양 탐험에서 비롯된 다양한 시각기록물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미술사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시기인 19세기(빅토리아 시대)의 미술과 시각문화는 전통적인 회화(라파엘전파, 풍경화, 오리엔탈리즘 미술)와 조각(기념물) 장르 외에도 박람회, 박물관, 백화점, 사진 등 근대 도시문화와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왔다. 학술 단행본을 중심으로 출판연도를 살펴보면 ‘왕관의 보석’으로 불리던 식민지 인도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데, 초기의 인도 중심주의적 흐름이 한동안 유지되다가 오리엔탈리즘 미술 연구에서 비롯된 소위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점차 카리브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으로 학문적 관심이 지리적 확장을 해나가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일견 제국주의적 확장을 연상케 하기도 하지만, 연구자의 당사자성(인종, 에스니시티, 젠더, 섹슈얼리티 등)이 반영된 경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제국주의의 역사에서 나타난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전복, 또는 백인-헤테로-남성이 주인공으로 상정된 제국사의 기존 서사에 주류로부터 배제되어온 존재‘들’이 적극 개입하여 ‘다시 쓰기’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시각문화 연구와 미디어 연구로 시야를 넓히면, 건축과 실내 디자인, 가구, 패션, 광고와 포스터, 사진엽서,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제)국의 미술과 시각문화 연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IV. 현재진행형의 역사: ‘Brexiting’ 시대의 학문적 실천

2015-16년, 남반구에서 북반구를 가로지르며 두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대학 학생들은 2015년 3월부터 세실 로즈(Cecil Rhodes, 1853-1902)의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로즈는 퇴출되어야 한다(Rhodes Must Fall, RMF)’ 운동을 시작했다.[35] 영제국

35) “UCT correspondence around #RhodesMustFall,” University of Cape Town, accessed July 15, 2024, https://www.news.uct.ac.za/news/de-

www.kci.go.kr

의 아프리카 식민화를 상징하는 인물인 로즈는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 재벌이자 케이프 식민지(Cape Colony)의 총독이었고, 그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케이프타운 대학 캠퍼스를 비롯한 남아공의 여러 대학과 도시들에 남아있다. 2015년 4월, 마침내 캠퍼스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던 로즈 동상이 철거되면서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시작된 RMF 운동과 교육과정 탈식민화에 대한 논의는 남아공 전역으로 확산되었다.[36] 남반구에서 재점화된 탈식민화 운동은 2016년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된 영국의 RMF 운동으로 이어졌다. 옥스퍼드 대학은 세실 로즈가 남긴 (제국주의적) 유산에 바탕을 둔 장학금 제도의 수혜를 누려왔고, 여전히 로즈의 동상이 오리얼 칼리지(Oriel College) 건물 외벽에 서 있기에 옥스퍼드 또한 제국주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동상을 철거하고 커리큘럼을 비롯한 캠퍼스의 교육 환경을 탈식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2014년 UCL에서 시작된 교육과정 탈식민화 운동과 만나 영국 전역의 대학들로 널리 공유되었으며, 변화에 대한 요구는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찬반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37]

백래시(backlash)는 보수당이 집권한 2010년대 영국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찾아왔다. 2014년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가 부결되었고, 2016년 6월 23일에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회원국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찬성 51.9퍼센트, 반대 48.1퍼센트의 근소한 차이로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된 뒤, 영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난한 시간을 겪어야 했다. 학계도 예외는 아니었다.[38]

---

bates/Transform-UCT.

36) 필자가 케이프타운 대학을 방문했던 2015년 7월 당시, 세실 로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좌대는 학생들에 의해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재단장된 상태였다. 동상이 철거된 지 3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캠퍼스 곳곳에서 탈식민화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고, 필자가 참석한 국제 여름학교 기간 동안 캠퍼스 중앙의 빈 좌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모임이 지속되었다.

37) Amit Chaudhuri, "The real meaning of Rhodes Must Fall," *The Guardian*, March 16, 2016,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6/mar/16/the-real-meaning-of-rhodes-must-fall.

www.kci.go.kr

2016년 국민투표 이후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에서 탈퇴 처리되었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 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월 1일에 브렉시트가 공식 발효되었는데, 이 기간을 상태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Brexiting’ 시대로 명명하고자 한다. ‘Brexiting’ 시대는 필자가 영국의 미술사학계 일원(학생-교수자-연구자)으로서 네트워크의 행위자로 활동하는 동시에, 참여관찰자로서 영국미술사 분야에 대한 메타 비평을 시도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39]

2015-16년에 등장한 RMF 운동은 케이프타운 대학의 로즈 동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모든 기념물과 조각상, 제국주의적 인물을 기리는 건물이나 거리 이름 등으로 논의의 대상과 범주가 확장되었다. 운동에 대한 반향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구 식민지에서 (이제는 사라진) 영제국의 중심지로 번져 나갔다. 기념물과 조각상은 기억 정치에 있어 중요한 매체이자 미술사의 오랜 연구 주제로, ‘불편한(difficult)’ 역사적 사건 또는 문제적 인물을 주제로 한 경우 침묵의 대상이 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한다. ‘Brexiting’ 시대는 침묵을 깨고 나온 ‘퇴출주의(Fallism)’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연방국가들과의 ‘새로운’ 무역 관계를 통해 ‘제국 2.0’이 되기를 꿈꾸는 정치인들의 구호 속에서 (미술사학자를 포함한) 영국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40]

---

38) 지역별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 도시들은 브렉시트에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Results,” EU Referendum, BBC, last modified 2020, https://www.bbc.co.uk/news/politics/eu_referendum/results.

39) 2014-18년 박사과정, 2018-19년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영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했다.

40) Sam Coates, “Ministers aim to build ‘empire 2.0’ with African Commonwealth,” *The Times*, March 6, 2017, https://www.thetimes.com/article/ministers-aim-to-build-empire-2-0-with-african-commonwealth-after-brexit-v9bs6f6z9; Tim Haughton, “It’s the slogan, stupid: The Brexit Referendum,” University of Birmingham, accessed July 15, 2024, https://www.birmingham.ac.uk/research/perspective/eu-ref-haughton; David Olusoga, “Empire 2.0 is dangerous nostalgia for something that

www.kci.go.kr

2016년 1월, 역사학자들이 모여 “제국은 우리를 어떻게 형성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41] 앙투아네트 버튼(Antoinette Burton)과 데인 케네디(Dane Kennedy)가 주축이 되어 시도한 공동 실험은 영제국사학자 17명의 자전적인 연구기/회고록를 모아 연구자의 출생연도순으로 배치함으로써(1934년생부터 1984년생까지), 1) 자연스럽게 시대와 세대를 가로지르고, 2) 제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성장배경과 연구자로 훈련받고 학계의 전문가로 자리 잡아 가는 일련의 과정이 결코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해당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와도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42] 대개 미술사학계의 반응이 느지막하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제국사학자들의 공동 작업에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 필자는 곧바로 영(제)국미술사 연구의 시각에서 미술사학자들의 답변을 기획했다.

‘점 잇기(Connecting Dots)’ 시리즈는 1) 미술사학계에서 영국미술사와 제국사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흐름을 ‘영(제)국미술사 연구’로 명명하고, 2)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모여 어떠한 개인사적·지적 여정을 통해 미술사와 제국사의 교차지점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밝힘으로써 그간의 연구사를 다양한 맥락에서 재조명한 뒤, 3) 미술사와 인접 학문 간의 대화를 통해 논의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6년 5월에 열린 1차 워크샵은 우선 필자가 시리즈를 기획한 배경을 밝히고, 『제국은 우리를 어떻게 형성했는가』(*How Empire Shaped Us*)의 방법론을 따라 4명의 연구자가 출생연도순으로 개인 발표를 한 뒤에, 빅토리아 시대 연구로 유명한 미술사학자 엘리자베스 프렛존(Elizabeth Prettejohn)이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점 잇

never existed,” *The Guardian*, March 19, 2017,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mar/19/empire-20-is-dangerous-nostalgia-for-something-that-never-existed.

41) Antoinette Burton and Dane Kennedy, eds., *How Empire Shaped Us*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6).

42) 필자로 참여한 제국사학자들은 영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트리니다드 토바고, 일본 등에서 역사학 교수직을 맡고 있거나 은퇴한 이들이다.

www.kci.go.kr

기: 미술사와 영제국(Connecting Dots: Art History and the British Empire)’에서는 팀 베린저(예일대 미술사학과 교수), 나타샤 이튼(Natasha Eaton, 당시 UCL 미술사학과 교수), 제이슨 에드워즈(Jason Edwards, 요크대 미술사학과 교수), 필자(당시 요크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생)가 1) 왜 영(제)국미술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2) 어떠한 학문적 배경에서 훈련받았는지, 3)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소개하였다.

필자가 기획자로서 위의 세 사람을 발표자로 초청한 것은 각 연구자가 영(제)국미술사 분야의 각 세대를 대표하고, 주력하고 있는 연구 시대 및 주제를 통해 각 영역을 대표하면서도 동시에 분야 내에서 다양하게 교차하고 있다는 특징 때문이었다. 베린저는 앞서 언급했듯이 영(제)국미술사 분야의 선구자로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서 출발해 21세기 동시대 미술까지 폭넓게 다루어 왔으며, 연구 주제 면에서도 19세기 회화(라파엘전파, 풍경화), 박람회, 박물관, 기념물, 음악 등 다양한 대상을 검토했다. 이튼은 18세기를 중심으로 영국과 남아시아의 미술을 함께 살펴보면서 문화 간 교류를 주로 연구하였다. 제국주의/식민주의 맥락에서 일어난 교류에 대한 관심은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미술 제작자와 그 대상 모두)의 만남, 수집과 투어리즘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43] 그의 연구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색채(colour) 개념을 도입해 매체와 물질성, 생태와의 연관성, 백인성(whiteness)의 문제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 영문학 전공자였던 에드워즈는 박사후 연구원 시절부터 조각을 중심으로 긴 19세기 영(제)국의 시각문화를 분석해왔는데, 조각이라는 매체에 대한 관심을 통해 식민지 인도, 19세기 포경 산업과 북극 탐험 등으로 연구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44] 발표자 가운데 가장 젊은 세대인 필자는 영(제)국미술사 분야의

43) 이튼은 18세기에서 동시대 미술로 연구 대상을 점차 넓혀갔으나, 안타깝게도 2024년 하반기에 세상을 떠나 그의 후속 연구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Natasha Eaton, *Colour, Art and Empire: Visual Culture and the Nomadism of Representation* (London: I.B. Tauris, 2013); *Mimesis Across Empire: Artworks and Networks in India, 1765-1860*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3); *Travel, Art and Collecting in South Asia: Vertiginous Exchange* (London: Routledge, 2021).

www.kci.go.kr

잃어버린 퍼즐과도 같은 전간기(戰間期) 연구에 집중해왔다.[45] 이 시기는 전형적인 영국미술 연대기는 물론 포스트 식민주의 연구의 영향을 받은 미술사 연구에서도 여전히 양차 대전 사이의 역사적 진공상태로 남아있어,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새로운 미술사적 해석이 필요하다.

2017년 5월, 2차 워크샵 '(다시) 점 잇기: 미술사를 넘어서((Re)connecting Dots: Conversations Beyond Art History)'는 미술사라는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제국주의 연구에서의 시각성과 시각문화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디자인사학자, 역사학자, 미디어 연구자, 영문학자를 초대했다. 1차 워크샵의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디자인사학자 조나단 우드햄(Jonathan M. Woodham),[46] 역사학자 조안나 드 그루트(Joanna

---

44) 에드워즈가 공동 기획한 전시 ≪승리를 거둔 조각≫(*Sculpture Victorious*)은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예일 영국미술센터(2014년 9-11월), 테이트 브리튼(2015년 2-5월)에서 연이어 개최되었다. Martina Droth, Jason Edwards, and Michael Hatt, eds., *Sculpture Victorious: Art in an Age of Invention, 1837-1901*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2019-22년에는 '판테온: 세인트 폴 대성당의 조각, 1796-1916년(Pantheons: Sculpture at St Paul's Cathedral, c. 1796-1916)'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에드워즈는 중도 폐지된 애쉬게이트 '영국미술: 전 지구적 맥락' 시리즈의 편집진이기도 했다.

45) Jiyi Ryu, "The Queen's Dolls' House within the British Empire Exhibition: Encapsulating the British Imperial World," *Contemporary British History* 33, no. 4 (2019): 464-482; "Alfred A. Longden and His Career: British Propaganda, Cultural Diplomacy and Early Days of the British Council in Visual Arts," *The Korean Journal of British Studies* 51 (2024): 201-232 [류지이, 「영제국의 문화 외교 정책과 영국문화원 미술위원회의 형성 - 알프레드 A. 롱든의 활동을 중심으로」, 『영국 연구』 51호 (2024년): 201-232].

46) 영국 학계에서는 디자인사(design history)가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존재하며 미술사와는 분리된 학과 체제로 운영된다. 물질문화 연구(material culture studies)는 UCL 인류학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시각 및 물질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영국의 학문적 전통 속에서 디자인사학과는 디자인사와 물질문화를 함께 다루는 경향이 있다. 우드햄은 영국 디자인사학계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노장으로, 2017년 브라이튼 대학 교수직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920년대 영국의 디자인과 제국주의, 피식민지인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한 두 편의 논문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나온 영(제)국 미술사 연구 사례이다. Jonathan M. Woodham, "Design and Empire: British Design in the 1920s," *Art History* 3, no. 2 (1980): 229-240; "Images of Africa and Design at the British Empire Exhibitions between

www.kci.go.kr

de Groot),[47] 미디어 연구자 아난디 라마무르티(Anandi Ramamurthy)[48] 순으로 자전적 에세이를 발표한 뒤, 제국주의 연구의 시각적 전환을 가져왔던 역사학자 맥켄지와 카리브해 식민지 문학을 연구해온 영문학자 클레어 웨스톨(Claire Westall)이 공동 진행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이어졌다.[49] 토론에는 미술사 분과학문 바깥에서 온 발표자들과 청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미술사 전공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고, 영(제)국미술사 분야의 의의와 ‘Brexiting’ 시대의 미술사/학자의 역할, 제작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디지털 환경에서 적절한 해설 없이 소비되는 제국주의/식민주의적 이미지의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Brexiting’ 시대 영(제)국미술사 연구는 크게 ‘제국’과 ‘인종’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에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제국과 인종이라는 렌즈를 통해 일국사적 미술사의 굴절된 정체성을 재검토하는 작업은 브렉시트가 촉발한 ‘영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미술사학자들의 반응이기도 했다. 한편에서 필자를 포함한 미술사학자들이 기존의 영국미술사 서사에서 누락된 요소들을 발굴·복원하기 위해 영제국의 문화사와 제국주의적 문화 예술 정책들의 이면을 되짚어 보았다면, 다른 한편에는 형식적인 탈식민화 이후 영국미술계에 나타난 ‘블랙 브리티시 아트(Black British Art)’의 흐름을 공식 기록하고, ‘블랙(Black)’ 미술가들을 모더니즘 미술사의 맥락 속에 재위치시키고

---

the Wars,” *Journal of Design History* 2, no. 1 (1989): 15-33.

47) Joanna de Groot, *Empire and History Writing in Britain c. 1750-2012*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3).

48) Simon Faulkner and Anandy Ramamurthy, eds., *Visual Culture and Decolonisation in Britain* (Aldershot: Ashgate, 2006); Anandi Ramamurthy, *Imperial Persuaders: Images of Africa and Asia in British Advertising*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2003년에 출간한 단행본은 맥켄지가 지도했던 라마무르티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

49) 맥켄지는 『제국은 우리를 어떻게 형성했는가』에 필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발표자가 아닌 토론의 좌장으로 초대했다. 맥켄지의 자전적 에세이가 선집에 세 번째로 실려있다는 사실에서 그의 오랜 학문적 경력을 짐작할 수 있다.

www.kci.go.kr

자 노력한 연구자들이 있었다. 이 글에서 'Black'과 'Black Art'를 따로 번역하지 않고 음차하는 이유는, 이 용어들이 영국 미술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1980년대 영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Black'은 흑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의 문화적 유산을 지닌 예술가 모두를 일컫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범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린 시절에 영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세대부터 디아스포라 배경을 지닌 영국의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성장하면서 영국식 미술 교육을 받은 세대 모두 포함된다.

'블랙 브리티시 아트' 복원에 집중해온 연구자로는 소니아 보이스(Sonia Boyce), 도로시 프라이스(Dorothy Price), 앨리스 코레이아(Alice Correia)가 대표적인데, 이들 모두 당사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80년대 블랙 아트 운동의 대표 주자였던 소니아 보이스는 현재 런던 예술대학 블랙 아트·디자인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여성성, 제국주의/식민주의, 인종주의의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그는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영국관을 대표하는 최초의 '흑인' '여성' 예술가로 참여해 국가관 부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보이스의 개인 작품활동과 별개로, 영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5-18년 진행한 '블랙 미술가들과 모더니즘(Black Artists and Modernism)' 연구 프로젝트는 영국(현대)미술사 계보의 분수령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의 결과물을 토대로 기획된 전시와 이를 조명한 BBC 다큐멘터리를 통해 미술계를 넘어 영국 사회 전체에 인종, 이민, 디아스포라 문제를 새롭게 환기시켰다.[50] 모더니즘과 현대미술을 전공한 도로시 프라이스는 초기에는

50) 프로젝트의 결과로 맨체스터 미술관의 ≪발화 행위들: 반영, 상상, 반복≫(*Speech Acts: Reflection, Imagination, Repetition*) 전(2018년 5월-2019년 4월), 미들즈브러 현대미술연구소(Middlesbrough Institute of Modern Art)의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블랙 미술가들과 모더니즘과 함께≫(*Why Are We Here? With Black Artists & Modernism*) 전(2019년 3-6월)이 개최되었다. 보이스와 프라이스는 프로젝트의 성과와 의미를 회고하며 학술지 『미술사학』(*Art History*)의 '영국미술을 다시 생각하다: 블랙 미술가들과 모더니즘(Rethinking British Art: Black Artists and Modernism)' 특집호를 공동 편집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소개글은 Sonia Boyce and Dorothy Price, "Dearly Beloved or Unrequited? To Be 'Black' in Art's Histories," *Art*

www.kci.go.kr

독일 표현주의와 바이마르 시대의 시각문화를 주로 연구하면서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초국가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프라이스는 당시 재직 중이던 브리스톨 대학에서 ‘초국가적 모더니즘들(Transnational Modernisms)’ 연구단을 이끌었고, 2016년 ‘중요했던 10년의 세월을 생각하며: 블랙 아트 운동 이후(Framing the Critical Decade: After the Black Arts Movement)’ 학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영국의 동시대 디아스포라 미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발전시켜 나갔다.[51] 2017년 프라이스가 영국미술 네트워크(British Art Network) 내에 ‘블랙 브리티시 아트’ 연구 그룹을 처음 만든 이래 지금까지, 연구 그룹은 이론과 현장을 넘나들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과거에 직면하기(Confronting the Past for a Sustainable Future)’를 실천해오고 있다.[52] 그룹의 일원인 앨리스 코레이아는 20세기 후반 영국미술을 중심으로 영국의 아프리카, 카리브해, 남아시아계 미술가들을 연구해왔다. 코레이아는 ‘영국계 아시아 미술의 역사들 설명하기(Articulating British Asian Art Histories)’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980년대에 활동했던 미술가들의 발언과 관련 기사, 비평, 인터뷰, 연설문 등을 모아 영국의 블랙 아트 운동 자료를 『블랙 아트란 무엇인가?』(*What Is Black Art?*)라는 제목의 선집으로 출간하였다.[53]

History 44, no. 3 (2021): 462-480.

51) 보이스가 학회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52) 영국미술 네트워크는 2012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후원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연구 역량을 유지하고 영국미술 컬렉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2015년부터는 매해 연구 그룹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폴 멜론 영국미술연구센터(Paul Mellon Centre for Studies in British Art)가 테이트 미술관의 파트너로서 영국미술 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폴 멜론 센터는 예일 영국미술센터의 자매기관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테이트 미술관(특히 테이트 브리튼)과 폴 멜론 센터, 예일 영국미술센터가 영국미술을 주제로 대형 전시를 기획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라이스가 2021년 런던의 코톨드 미술연구소(Courtauld Institute of Art)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는 브리스톨 대학 미술사학과의 엘리자베스 로블스(Elizabeth Robles)가 ‘블랙 브리티시 아트’ 연구 그룹 리더를 맡고 있다. “Black British Art,” British Art Network, accessed July 15, 2024, https://britishartnetwork.org.uk/research/black-british-art.

www.kci.go.kr

‘Brexiting’ 시대에 나타난 영국 학계의 반응들 가운데, 버밍엄 대학이 2014년에 설립한 현대영국연구소(Centre for Modern British Studies, MBS)의 활동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MBS는 문화 이론가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이 활동했던 현대문화연구소(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1964-2002)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은 아니지만,[54]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 작업을 강조했던 현대문화연구소의 정신을 이어받아 2014년 2월과 2015년 1월에 공동 작성한 ‘Working Paper’를 발표했다.[55] MBS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문 내의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학제 간 연구와 사회적 참여를 지향하고 권력 제도들을 염두에 두면서 영국사를 고찰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기 각자의 영역에서 영국미술사의 최전선이 후퇴하지 않도록 분투하던 이들이 한데 모이게 된 계기는 바로 ‘부서진 세계의 영국 연구(British Studies in a Broken World)’를 주제로 열렸던 MBS 2017 학회였다.[56]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2017년의 학회는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버밍엄 대학 연구자들의 직접적인 반응이자, 브렉시트가 다가오는 영국과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를 맞게 된 미국의 영국학 연구

53) Alice Correia, *What Is Black Art?* (London: Penguin, 2022).

54) 스튜어트 홀은 자메이카 출신 로즈 장학생 신분으로 이주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사과정을 중단한 그는 영국의 학계에서 문화 연구와 인종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적 이론가로서의 경력을 다져나갔다. 1980년대 이미 중요한 이론가로 활약 중이던 스튜어트 홀의 글을 읽으면서 그가 당연히 백인일 거라 짐작했었다는, 역사학자 제임스 버논의 솔직한 고백은 오랫동안 스튜어트 홀의 식민 주체성과 흑인 남성성을 지워온 학술 담론의 좁은 시야를 지적하고 있다. James Vernon, “When Stuart Hall Was White,” *Public Books*, January 23, 2017, https://www.publicbooks.org/when-stuart-hall-was-white.

55) Working papers, Modern British Studies Birmingham, accessed July 15, 2024, https://mbsbham.wordpress.com/working-papers.

56) MBS는 연구소 설립 이듬해인 2015년부터 3일짜리 국제 학회를 주최하여 2017년, 2019년까지 이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MBS의 대형 학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www.kci.go.kr

자들(대체로는 역사학자들)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느꼈던 학문적 위기감이 깊게 반영된 것이었다.[57] ‘미술품과 영국 문화(The Art Object and British Culture)’ 패널에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영국미술을 연구하는 총 5명의 미술사학자가 참여했다.[58] 발표자들의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미술사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역 공공 박물관·미술관이 폐관을 맞는 현실 속에서 미술사는 ‘미술품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술사학자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패널은 MBS 2017 학회에서 유일하게 미술사학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같은 시기 미술사학계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논의하는 장이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필자를 포함한) ‘부서진 세계’의 미술사학자들은 앞서가고 있는 역사학자들의 보폭을 따라가려 애썼다.[59]

한편 RMF 옥스퍼드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세실 로즈의 조각상

57) 여타 대학 도시들과 달리 버밍엄은 브렉시트에 찬성했다. “EU Referendum: Birmingham votes Brexit by a whisker,” BBC, June 24, 2016, https://www.bbc.com/news/uk-politics-eu-referendum-36616108.

58) 18세기 영국미술에 나타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연구하는 사라 몽크스(Sarah Monks), 19세기 산업화 시대에 조성된 공공 컬렉션의 의미와 현재의 위기 상황을 비교 분석한 케이트 니콜스(Kate Nichols), 1970년대 점거 운동을 소개한 페미니스트 미술사학자 에이미 토빈(Amy Tobin), 1980년대 영국의 블랙 아트를 다룬 엘리스 코레이아, 현재의 정치적 지형 속에서 제국의 미술과 포스트 식민주의 미술사를 연구하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본 필자가 패널 발표자로 참석했다.

59) 신제국사에 부응하는 미술사의 정치적 전환이 느지막하게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브렉시트에 대한 미술사학계의 반응 또한 더디게 나타났다. 2018년 이모젠 하트(Imogen Hart)와 데이비드 피터스 코빗(David Peters Corbett)이 ‘영국미술과 세계(British Art and the Global)’ 학회를 구상했고, 2019년 9월이 되어서야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이틀짜리 학회가 개최되었다. 앞서 언급한 팀 베린저와 도로시 프라이스가 학회의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필자 또한 발표자로 참여했다. 영(제)국미술을 연구하는 이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영국미술’이라는 개념과 범주, 일국사적 미술사의 유효성과 국가 정체성, 제국사의 맥락에서 미술사를 연구하는 학술적 실천의 의미, 다문화적인 동시대 (영국)미술계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논의되었다.

www.kci.go.kr

철거 문제를 넘어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즉 대학 내에 팽배한 제도화된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했지만, 옥스퍼드 대학 측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 학생들이 주도했던 교육과정 탈식민화 운동은 그 결과가 폭발적이지는 않았으나, 2018년에 이르러 몇몇 대학들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약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과거 영제국의 식민지로 파견할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했던 기관인 런던대 소속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가 'SOAS 탈식민화 방안(Decolonising SOAS Learning and Teaching Toolkit for Programme and Module Convenors)'을 발표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60] 이보다 더 고무적인 사례는 런던 예술대학(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UAL)의 '미술 교과과정 탈식민화(Decolonising the Arts Curriculum)'이다. UAL 미술 교과과정 탈식민화 운동과 소기의 성과는 예술 전공 학생연합과 교직원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UAL 소속 학생과 교수자 들은 미술 교과과정 탈식민화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 잡지의 형태로 묶어 'Zine 1'(2018년 6월)과 'Zine 2'(2019년 11월)를 출판하고, 런던 예술대학 소속 6개 단과대학에서 차례로 탈식민화를 주제로 한 전시를 열었다.[61]

그리고 2020년, 비로소 '미술사의 탈식민화'에 대한 미술사학자들의 응답이 도착했다.[62] 미술사학자 캐서린 그랜트(Catherine Grant)와 도로시 프라이스가 정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영국 미술사학계를 대표하는 학회인 미술사협회(Association for Art History, AAH)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실렸다. 두 편집자는 미술사학자, 큐레이터, 작가 들에게 다음의 4개 공통 질문을 던지고 자유로운 형식의 답변을 받기로 했다.

1. 현재 대두한 미술사의 탈식민화에 대한 요청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은 무엇인가? (포스트 식민주의, 페미니즘, 퀴어 연구, 마르크스주의

60) 1916년 동양학(Oriental Studies)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38년 아프리카 연구가 더해지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61) Decolonising the Arts Curriculum: Perspectives in Higher Education, last modified 2024, https://decolonisingtheartscurriculum.myblog.arts.ac.uk.

62) Grant and Price, eds., "Decolonizing Art History."

www.kci.go.kr

처럼) 이전에 있었던 학제에 대한 도전들과 어떻게 다른가?

2. 현재 미술사의 탈식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탈식민화된 미술사는 어떤 모습일까? 탈식민화된 미술사는 어떻게 쓰이고/행해져야 하는가?

3. 미술사의 탈식민화가 당신의 연구/실천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무엇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인가 폐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4. 미술사와 관련하여 탈식민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탈식민화 요청을 위한 공간을 다르게 만들 전략은 무엇인가?

최종 출간된 글에는 총 30명의 답변이 실려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영국과 미국의 대학에 자리잡고 있으며, 4명만이 캐나다, 나이지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대학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3]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미술사의 탈식민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답변에서부터 탈식민화는 그 자체로 불가능한 프로젝트라는 의견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미술사 교과서와 고전(canon)으로 여겨지는 작품들이 제한적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 학제적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파악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국사적인 미술사에서 벗어나 국가·문화·집단·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들’에 좀 더 주목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AAH가 제기한 미술사의 탈식민화에 대한 질문은 흥미롭게도 2015년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시작된 RMF 운동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영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의 진통, 대학과 박물관계의 재정 위기, 이민자들에 대한 국수주의적·외국인 혐오적 반응들이, 사치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이미 궁지에 몰린) 미술사의 학제적 위치를 되돌아보게 했다. 포스트 식민주의 연구와 비판적 인종 연구(critical race studies)의 영향 아래, 다소 느린 속도로 변화해온 미술사 연구·교육·전시 기획에 대한 영국 미술(사학)계의 자기반성적 태도는 2020년대 이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2021년 1월

63) 영미권 밖의 지역들이 모두 과거 영제국의 식민 경험을 가진 국가들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www.kci.go.kr

1일을 기점으로 브렉시트가 발효되었지만, 현실 세계는 법과 달력의 숫자처럼 단절적이지 않기에 'Brexiting' 시대에 대두되었던 변화의 목소리와 학문적 실천, 이에 대한 백래시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V. 나가며: Empire Is the New Black?

19세기에 근대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미술사는 국민국가의 형성과 궤를 같이해왔다. 미술사는 '작품'이라는 이름 아래 대상을 수집하여 맥락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맥락화 또는 탈맥락화가 이루어진다. 미술관의 전시 내러티브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을 반영하며, 일국사적인 성격의 미술사는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범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 제국의 메트로폴리스이자 포스트 제국 사회인 영국의 수도 런던의 중심에서 테이트 브리튼의 기획전과 상설 전시는 영국의 정체성을 충실히 재현해왔다. 2013년 이래 '영국미술을 거닐다(Walk through British Art)'라는 제목 아래 전시되었던 테이트 브리튼의 영국미술사는 이민자 출신 영국 작가, 영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출신 작가의 작품으로 대상을 확장해가면서 영국의 국립 미술관이 규정하는 '영국미술'의 범주와 정체성의 외연을 넓혀왔다. 2015년 테이트 브리튼의 기획전 ≪예술가와 제국≫은 부제 'Facing Britain's Imperial Past'가 보여주듯이 영국의 제국주의 과거를 마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기자회견 당시부터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다양한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64] 테이트 브리튼이 201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제국'을 언급했던 전시 ≪예술가와 제국≫은 2016년 싱가포르 국립 미술관으로 건너가 영제국의 구 식민지에서 관람객을 만났다.

2020년 5월 미국에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여파와 여기에서 촉발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 운

64) Alison Smith, David Blayney Brown, and Carol Jacobi, eds., *Artist and Empire: Facing Britain's Imperial Past* (London: Tate, 2015).

www.kci.go.kr

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과거 노예 무역항으로 악명이 높았던 영국의 도시 브리스톨에서도 BLM 집회가 열렸다. 인종 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17세기 노예 무역상 에드워드 콜스턴(Edward Colston, 1636-1721)의 동상을 밧줄로 끌어내려 강물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에서 기념물 철거 논란이 일어났다.[65] BLM 운동은 공공역사와 기념물, 박물관·미술관의 전시와 내러티브, 대학의 커리큘럼은 물론 대중문화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남아있는 제국의 유산과 백인-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졌다. 2020년 BLM 운동을 지나 2021년 #StopAsianHate 운동에 이르는 동안 인종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처럼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는 가치관들과 그 흔적들이 21세기 지구상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학계와 전시 현장에서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퍼져나오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한 책과 전시가 새롭게 발표되고 있다. UAL이 꾸준히 실천 중인 미술 교육과정 탈식민화 노력은 2021년 팬데믹의 한가운데서도 이어졌다. 그 결과물은 2023년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 해석들, 미술과 교육』(*Frantz Fanon's Black Skin, White Masks: Interpretations, Art & Pedagogy*)으로 출간된 뒤 온라인상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66] 2023년 테이트 브리튼은 영국미술 전시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이와 함께 ‘다시 보다(Look Again)’ 시리즈를 출간하기 시작했다. 2024년 상반기까지 펴낸 책들은 각각 계급, 제국, 페미니즘, 젠더, 패션, 가시성, 복잡성, 바다, 믿음, 죽음, 소녀, 이방인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2024년 2월, 영국 왕립

65) RMF 옥스퍼드 운동이 재점화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66) “Frantz Fanon's Black Skin, White Masks: Interpretations, Art & Pedagogy,” Decolonising the Arts Curriculum: Perspectives on Higher Education, accessed July 15, 2024, https://decolonisingtheartscurriculum.myblog.arts.ac.uk/frantz-fanon.

www.kci.go.kr

미술원(Royal Academy of Arts)은 ≪1768년부터 지금까지, 얽혀있는 과거들: 미술, 식민주의 그리고 변화≫(*Entangled Pasts, 1768-Now: Art, Colonialism and Change*) 전을 개최하였다.[67] ≪얽혀있는 과거들≫은 왕립 미술원에서는 처음으로 식민주의를 전면에 드러낸 전시로서, 영국미술사의 고전적인 작품들과 함께 현재 영국에서 활동 중인 동시대 작가들(특히 아프리카, 카리브해, 남아시아 디아스포라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노예와 인종주의 문제를 살펴보았다.[68]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영(제)국미술사의 연구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했다. 미술(사학)계의 변화는 비록 늦게 찾아왔지만, 미술사의 탈식민화를 꾀하면서 미술사와 제국사의 교차지점에 주목했던 근래의 연구 성과들은 제국의 형성과 제국주의의 확장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이 과정에서 혼종적인(hybrid) 문화들이 탄생했음을 보여주었다. 2007년 『미술과 영제국』의 선언처럼 '영국' 미술과 '제국' 미술의 이분법을 넘어 이 둘을 '얽힌 역사'로 이해할 때, 일국사의 경계를 넘어 제국사의 관점에서 영국의 미술사와 시각문화를 다시 읽어낼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역사적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문학 텍스트에 집중해 온 포스트 식민주의 연구에서 시각성이 갖는 중요성을 환기하고, 영국 미술사 분야에서 나온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사 및 초국가적 역사학에 대한 논의에 학제의 경계를 넘어 기여하고자 했다. 탈식민주의 미술사 쓰기에 대한 고민이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 제국을 경유해 들어온 (굴절된) 유럽의 근대 대학 체제와 분과학문으로서의 미술사를 경험한 한국의 학계에도 유용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67) Dorothy Price et al., *Entangled Pasts, 1768–Now: Art, Colonialism and Change* (London: Royal Academy of Arts, 2024).

68) 영국의 전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포스트 제국 사회의 공공 미술관을 주제로 한 별도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www.kci.go.kr

주제어

영국미술사, 제국, 포스트 식민주의, 신미술사, 신제국사, 얽힌 역사, 교육과정 탈식민화, British art history, empire, post-colonialism, new art history, new imperial history, connected history, decolonising the curriculum

<투고: 2024년 11월 15일, 심사종료: 2024년 12월 8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30일>

www.kci.go.kr

/Abstract/

Writing (British) Art History after 'Empire'

Ryu, Jiyi

The primary concern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ecent trends in British art history and to raise issues surrounding writing 'connected history' of Brtish art and empire in the post-colonial context. In the 1970s, the so-called 'new art history', 'social history of art', 'critical art history', and/or 'radical art history' represented a political turn in the discipline, introducing issues of class, race, gender, and sexuality. The theme of empire, however, was comparatively absent, perhaps the result of a burden or a taboo in 'post-' or 'neo-imperial' Britain in the late twentieth and twenty-first centuries when British forces entered the Gulf War and the Afghanistan War led by the United States. It was not until 2007 that *Art and the British Empire* declared the significance of empire in the narrative of British art history and traced a longer time span, seeking to break down the dichotomy between 'British' art and 'imperial' art. The second half of the 2000s and 2010s have also seen the emergence of scholarly works on British art in a wider global context. This paper provides the historiography of British art and empire studies, which resonates with the call for decolonising the curriculum as well as decolonising art history.

www.kci.go.kr

참고문헌

1. 단행본

(1) 국내서

Childs, Peter, and Patrick Williams. *An Introduction to Post-Colonial Theory*. Translated by Moonhwan Kim. Seoul: Moonye Publishing Co., 2004 [피터 차일즈·패트릭 윌리엄스. 『탈식민주의 이론』. 김문환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4].

Chun, Young-Paik. *Decisive Moments of Modern Art*. Seoul: Hangilsa, 2019 [전영백. 『현대미술의 결정적 순간들』. 서울: 한길사, 2019].

Foster, Hal, Rosalind E. Krauss, Yve-Alain Bois, Benjamin H.D. Buchloh, and David Joselit. *Art Since 1900: Modernism, Antimodernism, Postmodernism*. Translated by Suhee Bae et al. Seoul: Semicolon, 2016 [할 포스터 외. 『1900년 이후의 미술사』. 배수희 외 역. 서울: 세미콜론, 2016].

Harrison, Charles. *Modernism*. Translated by Moojeong Chung. Seoul: Yeolhwadang, 2003 [찰스 해리슨. 『모더니즘』. 정무정 역. 서울: 열화당, 2003].

Jo, Juyoun. *Hyundaemisul Gangui*. Paju: Geulhangari, 2017 [조주연. 『현대미술 강의』. 파주: 글항아리, 2017].

Kim, Daeryoon. *Money, State, Hegemony*. Paju: Woongjinjisikhouse, 2021 [김대륜. 『패권의 대이동』.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2021].

Kim, Hyunwha. *Journey to Contemporary Art*. Paju: Hangilsa, 2019 [김현화. 『현대미술의 여정』. 파주: 한길사, 2019].

Kim, Tai-Yoo, and Daeryoon Kim. *The Secrets of Hegemony*. Seoul: SNU Press, 2017 [김태유·김대륜. 『패권의 비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Kim, Youngna. *Johyunggwa Sidaejeongsin*. Seoul: Yeolhwadang, 1998 [김영나. 『조형과 시대정신』. 서울: 열화당, 1998].

_____. *Seoyang Hyundaemisului Giwon 1880-1914*. Seoul: Sigongsa, 1996 [『서양 현대미술의 기원 1880-1914』. 서울: 시공사, 1996].

Lee, Young-Suk. *The Memories and Legacy of the British Empire*.

www.kci.go.kr

Paju: Acanet, 2019 [이영석. 『제국의 기억, 제국의 유산』. 파주: 아카넷, 2019].

Lynton, Norbert. *The Story of Modern Art*. Translated by Nanjie Yun. Seoul: Yekyong Publishing Co., 2003 [노버트 린튼. 『20세기 미술』. 윤난지 역. 서울: 예경, 2003].

Park, Hye-Jeong. *One Globe Multiple Global Histori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22 [박혜정. 『하나의 지구 복수의 지구사 - 지구사 입문』.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Yun, Nanjie. *Abstract Art and Utopia*. Paju: Hangilart, 2011 [윤난지. 『추상미술과 유토피아』. 파주: 한길아트, 2011].

_____. *Landscape of Modern Art*. Paju: Hangilart, 2005 [『현대 미술의 풍경』. 파주: 한길아트, 2005].

(2) 국외서

Auerbach, Jeffrey A. *The Great Exhibition of 1851: A Nation on Displa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Auerbach, Jeffrey A., and Peter H. Hoffenberg, eds. *Britain, the Empire, and the World at the Great Exhibition of 1851*. Aldershot: Ashgate, 2008.

Baker, Malcolm, and Brenda Richardson, eds. *A Grand Design: The Art of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V&A, 1997.

Barringer, Tim, and Tom Flynn, eds. *Colonialism and the Object: Empire, Material Culture and the Museum*. London: Routledge, 1998.

Barringer, Tim, and Wayne Modest, eds. *Victorian Jamaic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8.

Barringer, Tim, Gillian Forrester, and Barbaro Martinez-Ruiz, eds. *Art and Emancipation in Jamaica: Isaac Mendes Belisario and His World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Barringer, Tim, Geoff Quilley, and Douglas Fordham, eds. *Art and the British Empir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7.

Bryant, Julius, ed. *Art and Design for All: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V&A, 2011.

www.kci.go.kr

De Groot, Joanna. *Empire and History Writing in Britain, c. 1750-2012*.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6.

Droth, Martina, Jason Edwards, and Michael Hatt, eds. *Sculpture Victorious: Art in an Age of Invention, 1837-1901*.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Dutta, Arindam. *The Bureaucracy of Beauty: Design in the Age of Its Global Reproducibility*. London: Routledge, 2007.

Eaton, Natasha. *Colour, Art and Empire: Visual Culture and the Nomadism of Representation*. London: I.B. Tauris, 2013.

_____. *Mimesis Across Empire: Artworks and Networks in India, 1765-1860*.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3.

_____. *Travel, Art and Collecting in South Asia: Vertiginous Exchange*. London: Routledge, 2021.

Faulkner, Simon, and Anandy Ramamurthy, eds. *Visual Culture and Decolonisation in Britain*. Aldershot: Ashgate, 2006.

Hamilton, Douglas, and Robert J. Blyth, eds. *Representing Slavery: Art, Artefacts and Archives i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Aldershot: Lund Humphries, 2007.

Harris, Jonathan. *The New Art Hist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2001.

Hatt, Michael, and Charlotte Klonk. *Art History: A Critical Introduction to Its Method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6.

Howe, Stephen, ed. *The New Imperial Histor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09.

Jay, Martin, and Sumathi Ramaswamy, eds. *Empires of Vision: A Read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4.

Kriegel, Lala. *Grand Designs: Labor, Empire and the Museum in Victorian Cultur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Kriz, Kay Dian. *Slavery, Sugar and the Culture of Refinement: Picturing the West Indies, 1700-184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Lugo-Ortiz, Agnes, and Angela Rosenthal, eds. *Slave Portraiture in the Atlantic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www.kci.go.kr

Marsh, Jan, ed. *Black Victorians: Black People in British Art, 1800-1900*. Aldershot: Lund Humphries, 2005.

Marshall, P.J., ed.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MacKenzie, John M. *Orientalism: History, Theory and the Art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MacKenzie, John M., ed. *The Victorian Vision: Inventing New Britain*. London: V&A, 2001.

Nelson, Charmaine A. *Slavery, Geography and Empire in Nineteenth-Century Marine Landscapes of Montreal and Jamaica*. London: Routledge, 2016.

Price, Dorothy, Alayo Akinkugbe, Esther Chadwick, Cora Gilroy-Ware, Sarah Lea, and Rose Thompson. *Entangled Pasts, 1768-Now: Art, Colonialism and Change*. London: Royal Academy of Arts, 2024.

Purbrick, Louise, ed. *The Great Exhibition of 1851: New Interdisciplinary Essay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Quilley, Geoff, and Kay Dian Kriz, eds. *An Economy of Colour: Visual Culture and the Atlantic World, 1660-1830*.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Ramamurthy, Anandi. *Imperial Persuaders: Images of Africa and Asia in British Advertising*.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Ramaswamy, Sumathi. *The Goddess and the Nation: Mapping Mother Ind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0.

Said, Edward W. *Orientalism: Western Conceptions of the Orient*.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Smith, Alison, David Blayney Brown, and Carol Jacobi, eds. *Artist and Empire: Facing Britain's Imperial Past*. London: Tate, 2015.

Thomas, Sarah. *Witnessing Slavery: Art and Travel in the Age of Abol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9.

Thompson, Andrew S., ed. *Writing Imperial Histori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3.

Wood, Marcus. *Blind Memory: Visual Representations of Slavery in*

www.kci.go.kr

England and America 1780-1865. New York: Routledge, 2000.

2. 논문

Boyce, Sonia, and Dorothy Price. "Dearly Beloved or Unrequited? To Be 'Black' in Art's Histories." *Art History* 44, no. 3 (2021): 462-480.

Grant, Catherine, and Dorothy Price, eds. "Decolonizing Art History." *Art History* 43, no. 1 (2020): 8-66.

Kim, Daeryoon. "A New Paradigm of British History?: Atlantic History, Global History and 'New British History'." *The Korean Journal of British Studies* 23 (2010): 1-29 [김대륜. 「영국사, 대서양사, 지구사 - 영국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영국 연구』 23호(2010년): 1-29].

Kim, Sangsoo. "Network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British Empire: A Re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tropole and Periphery." *The Korean Journal of British Studies* 31 (2014): 297-318 [김상수. 「영제국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 영국과 식민지의 관계에 대한 재고」. 『영국 연구』 31호(2014년): 297-318].

Lee, Young-Suk. "Historiography of the British Empire and Global History."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25 (2011): 297-326 [이영석. 「영제국사 서술과 지구사」. 『한국사학사학보』 25호(2011년): 297-326].

_____. "Recent Historiography of the British Empire and Culture." *The Journal of Western History* 50 (2014): 61-90 [「영제국사 서술과 문화」. 『서양사연구』 50호(2014년): 61-90].

Ryu, Jiyi. "Alfred A. Longden and His Career: British Propaganda, Cultural Diplomacy and Early Days of the British Council in Visual Arts." *The Korean Journal of British Studies* 51 (2024): 201-232 [류지이. 「영제국의 문화 외교 정책과 영국문화원 미술위원회의 형성 - 알프레드 A. 롱든의 활동을 중심으로」. 『영국 연구』 51호(2024년): 201-232].

_____. "The Queen's Dolls' House within the British Empire Exhibition: Encapsulating the British Imperial World." *Contemporary British History* 33, no. 4 (2019): 464-482.

www.kci.go.kr

"Visual Culture Questionnaire." *October* 77 (1996): 25-70.

Woodham, Jonathan M. "Design and Empire: British Design in the 1920s." *Art History* 3, no. 2 (1980): 229-240.

_____, "Images of Africa and Design at the British Empire Exhibitions between the Wars." *Journal of Design History* 2, no. 1 (1989): 15-33.

미출간

Ryu, Jiyi (류지이). "Visualising and Experiencing the British Imperial World: The British Empire Exhibition at Wembley (1924/25)."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rk, 2018.

3. 온라인 자료

Batty, David. "Only a fifth of UK universities say they are 'decolonising' curriculum." *The Guardian*, June 11, 2020.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0/jun/11/only-fifth-of-uk-universities-have-said-they-will-decolonise-curriculum.

BBC. "EU Referendum: Birmingham votes Brexit by a whisker." June 24, 2016. https://www.bbc.com/news/uk-politics-eu-referendum-36616108.

____. "Results." *EU Referendum*. Last modified 2020. https://www.bbc.co.uk/news/politics/eu_referendum/results.

British Art Network. "Black British Art." Last accessed on July 15, 2024, https://britishartnetwork.org.uk/research/black-british-art.

Chaudhuri, Amit. "The real meaning of Rhodes Must Fall." *The Guardian*, March 16, 2016.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6/mar/16/the-real-meaning-of-rhodes-must-fall.

Coates, Sam. "Ministers aim to build 'empire 2.0' with African Commonwealth." *The Times*, March 6, 2017. https://www.thetimes.com/article/ministers-aim-to-build-empire-2-0-with-african-commonwealth-after-brexit-v9bs6f6z9.

Decolonising the Arts Curriculum: Perspectives in Higher Education. Last modified 2024. https://decolonisingtheartscurriculum.myblog.arts.ac.uk.

www.kci.go.kr

Decolonising the Arts Curriculum: Perspectives on Higher Education. “Frantz Fanon’s Black Skin, White Masks: Interpretations, Art & Pedagogy.” Last Accessed on July 15, 2024. https://decolonisingtheartscurriculum.myblog.arts.ac.uk/frantz-fanon.

Haughton, Tim. “It’s the slogan, stupid: The Brexit Referendum.” University of Birmingham. Last Accessed on July 15, 2024. https://www.birmingham.ac.uk/research/perspective/eu-ref-haughton.

Modern British Studies Birmingham. Working papers. Last Accessed on July 15, 2024. https://mbsbham.wordpress.com/working-papers.

Olusoga, David. “Empire 2.0 is dangerous nostalgia for something that never existed.” *The Guardian*, March 19, 2017.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mar/19/empire-20-is-dangerous-nostalgia-for-something-that-never-existed.

UCLTV. “Why is my curriculum white?” Last modified November 12, 2014. https://youtu.be/Dscx4h2l-Pk.

University of Cape Town. “UCT correspondence around #RhodesMustFall.” Last Accessed on July 15, 2024. https://www.news.uct.ac.za/news/debates/Transform-UCT.

Vernon, James. “When Stuart Hall Was White.” *Public Books*, January 23, 2017. https://www.publicbooks.org/when-stuart-hall-was-white.

www.kci.go.kr